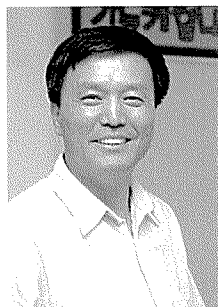




울산광역시지회 회원이 OK할 때까지 'OK! 울산지회!'

울산광역시지회는 지난 4월 28일 세미나실, 전시장 등을 갖춘 번듯한 건물에 최신 시설을 갖춘 새 보금자리를 틀었다. 이들이 무리를 하면서 회관을 이전한 이유는 회원들의 가려운 곳을 좀 더 시원하게 긁어주는 지회가 되기 위해서다. 그들은 '회원'이라는 고객을 최우선하는 '울산광역시지회'라는 서비스 회사다. 행동하는 지회, 울산광역시지회를 들여다본다.

글·김미선 기자 | 사진·전문식



황일하 · 울산광역시지회장

'삑~' '삑~' 핸드폰이 울린다. 문자 메시지가 왔나보다.

'○○구청 위생단속 기간입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원부재료, 합성수지 용기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식빵 원산지 표기는 잘 하고 계십니까?

누구지? 누가 이렇게 우리 점포를 신경써주고 있을까. 발신자를 확인해봤더니 울산광역시지회에서 회원 모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우리 지회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항상 바빠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울산광역시지회에서는 '회원 가까이의 지회'가 되기 위한 거듭나기가 한창이다.

울산광역시지회의 협회관 '협회는 정수장'

울산광역시지회의 변화와 발전의 중심에는 황일하 지회장이 우뚝 서있다. 그는 울산광역시지회 회원들의 삼고초려(三顧草廬) 끝에 지난 해 지회장에 올랐다. 그가 평소 생각해 온 올바른 협회의 역할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정수장'이다. 정수장에서 오염된 물을 정화해 집집마다 깨끗한 물을 받아 마실 수 있듯이 울산광역시지회 회원 모두가 협회의 알찬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울산광역시지회는 회원이 고객인 '서비스 회사'이고, 그들의 존재 의미는 '고객 만족'이다.

울산광역시지회 이사회는 오랜 세월의 노하우로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중장년층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뱅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젊은층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들 사이의 공통점이 있다면 지회 그리고 회원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두 팔 걷고 나설 수 있는 봉사정신으로 푹푹 뭉쳤다는 것이다.

새 보금자리, 회원 모두 위한 알찬 공간

얼마 전 울산광역시지회는 모두가 깜짝 놀라는 '대형사고(?)'를 쳤다. 지난 4월 28일 협소했던 지회 사무실을 툭툭 털고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회관은 회원들이 부담 없이 들릴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전의 사무실은 비좁은 공간의 한계로 인해 많은 회원들에게 세미나 혜택을 줄 수 없었던 데다가 교통마저 불편해 회원들이 편하게 오가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울산광역시지회가 회원 편익을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는 새 회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눈에 알 수 있다. 뱅뱅한 시설의 '세미나실'에서는 한꺼번에 100명이 함께 기술 발전의 꿈을 일굴 수 있고, 유치하느라 진땀 꽤나 빼야 했던 '포장재 전시장' 덕분에 각 제품에 맞는 포장재를 구하러 늘 부산까지 가야했던 번거로움을 덜었다. 없는 것 빼고 다 갖춰진 '제과기계 전시장'은 새로 나온 기계를 어느 지역보다 울산광역시지회 회원들이 먼저 접하게 해준다.

지난 6월 10일 새로 문을 연 세미나실에서 처음 진행된 이탈리아



빵 세미나에는 90명이 넘는 회원이 모여들어 큰 성황을 이뤘다. 지금껏 울산지역 제과인들이 기술에 대해 얼마나 큰 갈증을 느껴왔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급변하고 있는 제과시장에서 사소한 정보 하나라도 더 많이 배우고 더 빨리 익혀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새로 일군 회관은 앞으로 회원들을 위한 기술과 정보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지난 해 취임이후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하루도 빠짐없이 지회에 나와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황일하 지회장은 “회관 이전으로 이제야 뜻하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됐다”며 기술발전사업에 대한 더 큰 의욕을 키워간다.

‘희망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황 지회장 이하 울산광역시지회 전 임원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는 업소간 불균형의 해소다. 앞으로의 협회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는 시장에서 작은 업소들이 의욕을 잃지 않고 점포 운영에 몰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계획이다.

회원들과 좀 더 가까이 호흡하기 위해 인터넷만큼 편리하고 솔직한 도구도 없다. 울산광역시지회는 일찌감치 온라인 사랑방 카페 (<http://cafe.daum.net/ULKBA>) 를 구축했다. 지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들러 지회 운영에 대한 쓴소리, 단소리를 쏟아 내거나 서로 간의 유대를 돈독케 하는 창구로서 카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 참에 아예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도 세웠다.

울산광역시지회는 ‘희망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는 멋있는 모토를 갖고 있다. 지회가 일궈가는 여러 사업은 회원들이 지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현실로 가능케 해줄 지침돌이 될 것이다. 울산광역시지회는 회원의 꿈을 위해 존재하는 ‘희망 전도사’ 다. **B**

1. 울산광역시지회는 회관 이전으로 기술개발사업, 경영교육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 울산광역시지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역사 전시장.
3. 황일하 지회장은 회원이 정말 원하는 것을 파악해 해결해주는 ‘해결사’ 다. 묵묵히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지회 임원들에게 늘 감사할 따름이라고.
4. 이제 포장재를 사러 멀리 부산까지 가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회관에 자리 잡은 포장 전시장.
5.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최신 설비의 세미나실. 한달에 2번 회원을 위한 기술세미나가 펼쳐진다.